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9~12일 2주차 공연 별별창극서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2주차(9일~12일) 별별창극에서는 9일 오후 7시, 정읍시립국악단의 창작극 '갑오년 만석씨'는 동학의 발상지이자 근대 민족운동의 성지로 정읍을 널리 알리는 창작극으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에 휘말린 백정 만석, 그렇게 혁명군으로 다시 태어난 만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을 품은 대서사시로 펼쳐진다.

10일 오후 3시, 토크쇼설- '광대무변(廣大無邊)'은 그때 그 시절 이야기와 함께 그들

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대한민국 최고를 대표하는 명수가 되기까지 한 평생 오롯이 한 길만 걸어온 명무의 인생여정을 만난다. 명무 배경해 (풍류장고), 김은경 <산조춤>, 국수호 <남무(男舞)>가 출연하여 춤사위를 선보이며, 전주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1일 오후 7시, 목성의 '판소리인형극 수궁가'는 판소리와 인형극이라는 두 장르가 만나 수궁가를 새롭게 해석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 전통 판소리가 가진 1인극의 특징을 소리꾼의 재치 있는 재담에 더해 다양한 연극적 오브제(마리오네트, 키네틱 인형)와 한국 전통오브제(지전, 부포) 등을 통해 말로 그림을 그리듯 표현되는 판소리 무대를 꾸민다.

12일 오후 3시, 이정컴퍼니 '소리에 맞힌 사랑'은 전라도가 낳은 불세출의 명창 '임방울'의 실제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으로, 춘향할 남원에 도착한 사랑패는 독특한 의상 차림의 정체불명의 사람(전기수)을 만나게 되는데 뜻밖에 임방울과 산호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소리가 맺어진 사랑, 소리에 맞힌 사랑, 소리로 끝난 사랑 이야기이다.

관람은 7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관람문의는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립국악단의 창작극 '갑오년 만석씨' 모습.

부안 역사 담은 '부풍승람' 번역서 발간

부안교육문화회관, 1930년대 다양한 내용 수록 역사서 한글 번역문·탈초한 원문 수록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조창근)은 일제강점기 부안의 지형, 인물 등을 담고 있는 '부풍승람(扶風勝覽)'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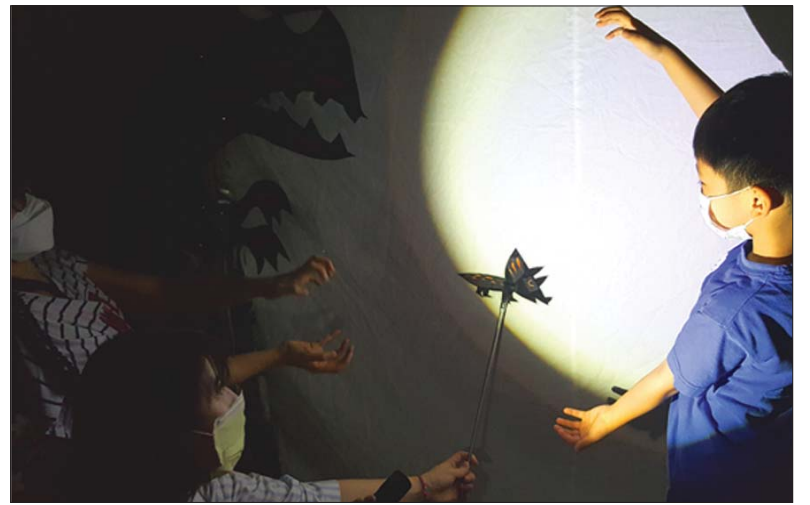
'부풍승람(扶風勝覽)'은 부안 향교에서 발행한 부안읍지로 조선시대 읍지의 전통과 체계를 계승하면서 신작로, 교량 등 1930년대 변화된 사회 모습을 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자료다. 부안지역의 자연 및 물산, 사회,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해 당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서이며, 또 충효열 등 유교 이념을 강조한 교화서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하고 있다.

해당 번역서는 한글 번역문과 탈초한 원문을

함께 수록하고 번역과정에서 편찬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석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한편 이번 번역사업은 도교육청과 부안군의 대응투자로 이뤄졌으며, 번역서는 회관 내 부안지역자료관에 비치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및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창근 관장은 "'국역 부풍승람'의 발간으로 부안지역의 연구를 활기차게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돼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진자료.

남원교육문화회관, 체험형 한복문화 교육 성료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김인수)은 지난 4월 12일부터 운영한 '체험형 한복문화 교육' 상반기 일정은 5월 31일 입실 청운초를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체험형 한복문화 교육은 남원·임실·순창지역의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10회 진행, 12개교 19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오전은 실내에서 한복 옷차림 해보기, 인사 예절법 배우기 등 예절교육을 오후에는 참여 학생 모두 한복을 입고 관한투원과 조깅명무관, 관서당 등 우리 고장의 숨은 명소를 찾아 전통놀이, 마패조각 찾기 게임, 훈장님과 문제 풀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야외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는 "임실, 순

창지역까지 현장체험 기회를 줘서 참여학생과 교사 모두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여학생은 "다양한 한복을 입어보고 한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다.

김인수 관장은 "우리 전통문화인 한복의 가치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길 희망한다"며,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일정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본격 시동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지난달 31일 3기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열(열)은 학교' 교육 수강생 12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5시간 동안 뜨거운 열의 속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강사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생들과 지역 문화기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열은 학교' 교육 과정은 '자신의 삶과 고창 지역 나아가 지구의 문제를 어떻게 함께 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청년, 마을활동가,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교육생으로 선발됨에 따라 폭넓은 시각을 공유하는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열(열)은 학교'는 7월 19일까지 지역 내 문화가 숨겨진 공간에서 총 8회 과정을 진행하며수강생들은 수료 후, 수강생은 문화활동을 운영하기 문화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31일 3기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열(열)은 학교' 교육 수강생 12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대된다.

/고창=김영석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